

수능 절대평가 “점진 확대” vs “전면 시행”



16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 옹봉홀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2차 공청회'에 참석한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충격·시행착오 줄여야”... “사교육 팽창시켜” 의견 분분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절대평가 도입 촉구 피켓 시위도

호남권 2021 수능 공청회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공청회에서 '단계적 절대평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전면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16일 전남대에서 수능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와 학부모·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두 번째 권역별(광주·전남·전북·제주)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현재 2개년 절대평가 영역을 4개로 늘리는 시안(1안)과 7개 영역 모두

를 절대평가 하는 안(2안)을 발표하고, 지난 11일 서울교대에서 첫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신병준 전남대 수학과 교수는 “정부의 개편안이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며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는 지나친 혼란을 야기한다. 점진적 개편이 충격을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는 2024학년도에 도입하고, 고교 내신성적까지도 절대평가 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학 역시 2024학년도까지 (수능을 대신할) 입학 전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철수 안남고 교감 역시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는 1안으로 가되 기한을 두고 2안을 시행하거나 수능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그는 “수시모집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처럼 수능 절대평가도 점진적 확대 시행으로 교육현장의 충격과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며, 이럴 경우 “입시절벽”을 마주한 현재의 고1 학생이 대학 진학에 실패할 경우 최소한의 변화에 적응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1안은 국어·수학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초·중등교육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고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것”이라며 전면 절대평가를 주장했다. 임 지부장은 다만, 정부의 입장대로 9등급제를 유지할 경우 학교 교육이 수능에 맞춰진 현재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등급(기준)을 완화해 5등급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이 성적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소수의 학생에게

편리한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학생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동호 광주여고 교사는 “1안은 기존 수능과 비슷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지만 수업 혁신에 한계가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가 전면 시행될 경우 대학이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학생부와 수능의 조합을 활용해 새 전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EBS 연계에 대해서는 축소·폐지의견이 많았다. 손철수 교감은 “EBS 연계가 사교육비 절감과 낙후지역 학생 배려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지금은 교육과정 황폐화의 주범이 됐다”며 “EBS 연계는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주도하고 있어 (창의·융합 수업을 강조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31일 수능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

대전 한남대, 서남대 인수전 가세

‘숙원’ 의대 유치 의지...목포대·순천대 ‘축각’

한남대학교 학교법인인 대전 기독교원까지 교육부가 폐교 절차를 밟는 서남대학교 인수 검토하고 있다. 의대를 보유한 서남대의 폐교 절차 돌입을 계기로 의대 유치가 나선 목포대와 순천대는 축각을 굳세우고 있다. 기독교원의 서남대 인수가 성사되면 의대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남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대전 기독교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이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서남대 인수추진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학교법인의 이런 움직임은 정월 49명 규모의 의대가 있는 서남대를 인수하면 한남대의 숙원인 의대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남대는 서남대 전북 남원 캠퍼스와 충남 아산 캠퍼스 인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에 나선 상태에서 한남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서남대가 폐교되면 해당 의대 정원을 가져와 의대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수

년째 의과대학 신설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유치의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기도 하다. 전남 서부권 목포와 동부권 순천에서 의대 유치를 추진하면서 한때 두 지역 간 협력 움직임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해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조직위원회’를 재정비에 의대 단독 유치를 원칙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포대는 전남도, 목포시 등 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 의료인 등과 함께 유치활동을 가속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목포대 관계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의대유치가 나섰다”며 “지역민의 염원인 의대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대도 의대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박진성 순천대 총장은 최근 조종훈 순천시장을 만나 의대 유치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조 시장과 박 총장은 역할을 분담해 교육부,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순천대 의대 유치 지원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 인수에 초점을 두고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를 인수하려던 서울시 계획을 반력하고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4 해질 19:19
물결 00:59 물결 15:18

다위 식하는 소나기
낮 기온이 30°C 내외로 덥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23/31	보성	호림	22/31	
목포	호림	23/31	순천	가평	24/31
여수	가평	24/29	영광	가평	24/30
나주	호림	23/31	진도	호림	25/30
완도	호림	24/30	전주	가평	23/30
구례	가평	22/30	군산	호림	23/29
강진	호림	22/30	남원	호림	23/30
해남	호림	23/31	홍산도	호림	23/29
장성	가평	22/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0.5~1.5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1.0~2.0	서~북서 1.0~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2:32	09:17
	14:56	22:25
여수	간조	만조
	10:45	04:27
	23:53	17:40

◇주간 날씨

18(공)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	☀	☁	☀	☀	☀	☀
23/30	24/30	24/28	23/28	24/31	23/32	23/31

◇생활지수

- 위험
- 보통
- 높음

열감기 증상 ‘바이러스성 수막염’ 주의

병원 찾은 영유아 5명 중 1명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광주에서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수막염 의심증세를 호소한 영유아 5명 중 1명이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수막염 검사 대상 477건 중 103건(21.6%)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5월에 2건, 6월에 18건에 그쳤던 수막염이 7월 33건, 이달 15일 기준 38건으로 급증했다. 검사 건수 대비 발생 비율도 5월 16.7%, 6월 37.5%, 7월 26.0%, 8월 38.0%로 늘고 있다. 시 보건당국은 무더위가 지속하는 다음 달까지는 감염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했다. /오광록기자 kroh@

엔테로바이러스는 고열·심한 두통·구토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손·발·구강에 수포성 병변이 생기면서 열이 나는 수족구병 등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인다.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회복되지만 중추신경계에 감염되면 뇌수막염·뇌염·마비증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지만, 기온이 상승하는 6월부터 주로 발생하기 시작해 10월까지 유행한다. 위생관념이 없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자주 발생하며 감염 경로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호흡기분비물·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장난감 등을 통해 전파된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교육청 초·중 교장·교감·전문직 인사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 초·중 학교 교장·교감·교육전문직 200명(초등 103명·중등 97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16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사 명단 22면> 이번 인사는 교육과학연구원장 등 교육공무원 퇴직·전직에 따라 결원 후임 보충인사를 중심으로 임용 알려졌다. 신임 교육과학연구원장에는 양정기

시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을, 교육정보원장에는 이상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에는 장기석 광주공고 교장을 임명했다. 시교육청은 근무의무제와 여성 관리자 배려, 교육 정책 및 학교문화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 인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판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 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자다리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 곳!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앞위치!